

❖ 낭만주의란, 왜 하필 카프카즈일까 ... ?

0. 여러분들, 낭만이 무엇인가요...? 네, ... ???

1. 문예사조로서의 낭만주의

- 앞선 시대 18세기 절대주의 이성중심의 신고전주의에 대한 반발
 - 이성, 질서, 조화, 전체, 위계 등등을 대신해 자연, 감정, 자아, 고독, 개인, 자유, 뮤즈 등이 중시
 - 밤, 사랑, 바람, 구름, 폭풍, 폭포, 꿈, 정열, 슬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추억, 지나간 것, 광기, 자유, 속박의 탈피, 광활함, 비상, 공간, 고독, 위악, 소외, 환멸, 악마주의, 영감, 천재, 예언자, 교사, 지도자, 냉소, 방황, 바이런, 죽음, 비극, 무덤, 파멸, 이별, 아픔, 눈물, 비련, 음울, 애수 등등의 정서가 대두
 - 낭만주의라는 문예사조로 보아, 서정시(抒情詩) 장르가 부각
 - 1) ‘자연’과의 교감의 능력, 즉 인간의 촉감, 잠재적 교류를 가능케 하는 의식 중시 - 쉽게 말해 석양을 보면 인생이 허무하고, 성난 파도를 보면 자신의 거친 운명이 느껴지고, 불타는 여름날 태양을 보면 뜨거운 자신의 사랑이 느껴지는 등, ... ^^
 - 2) 우주론, 범신론적 차원에서 직접 교감하기도
=> 묶어서, 상상력, 감각의 촉수의 발달, 아무나 못함 ...
 - 3) 낭만적 파토스(pathos)는 상시적인 것 (cf) 리얼한 요소
 - 상상은 염원, 꿈으로 확대
 - 그 바라는 바는 언제나 여백을 허용하는 것이기에 현실을 넘어 무엇인가 ‘다름’ 곳으로 전이 ; ‘카프카즈’
 - 그러나 막상 그 공간적 전이를 희망하는 곳 역시, 현실의 잠재태(潛在態)일 뿐, ... π,π
 - 그렇기에, 낭만적 파토스의 핵심은 끊임없는 현실의 폐기와 이동 자체의 지향성에 있다 ... !!! 유동성, 유체성(流體性)
 - 고정된 상황에서 인과적이고 순차적인 특성에 반하는 이런 성질은 기본적으로 변화하는 인간의 감성을 타고 흐른다. 따라서, 소설이 아니라, 시와 결합되는 것이다 ...
 - 4) “로맨틱 아이러니” ...
 - 이상을 품는 순간, 현실 역시 ‘형태’를 부여받아 이상을 가로막아 현실의 무게와 벽을 더욱 곧추 세운다.
 - 이때 꿈꾸던 인간은 꿈꾸기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으나, 꿈을 꾸는 순간 존재하기 시작한 현실을 느끼며, 자신의 무력감을 씹으며 포기하게 된다. 스스로를 객관화시키고, 관조(!)하게 된다. => 순응하는 현실; Romantic irony
 - 그러나, 이 현실에 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현실의 벽을 넘어가려는 ‘꿈’을 꾸게 된다면, 그것은 극복하려는 현실로 오히려 더 낮고, 더 약한 벽으로 보일 수도 있다.
 - 공상주의자가 아닌, 이상주의자만이 오히려 현실주의자가 되어 그것을 극복하려 노력할 수 있다.
- = “ 그럼에도, 그리고, 그렇기에 우리는 꿈을 꾸어야만 한다” - 강신주.

2. 낭만주의에서 민족주의로 진화

- 개인에 대한 강조는 결국 **개별 민족에 대한 자각**으로 이어짐
- 그 결과 자국어, 자국풍습과 민속, 자국의 역사 등에 대한 관심 증대
- 보편적인 모두의 것(the universal)이 아닌 '무엇인가 우리 것'(что-то своё; something of our own)에 대한 관심 증폭

3. 삶이자 사회적 사상으로서의 낭만주의와 민족주의

- 낭만주의는 가장 기본적으로 '저 멀리 다른 어떤 곳으로 외로이 향하는 자신의 마음'임
- **'움직임' 그 자체, 얽매이지 않는 몸과 정신의 자유, 자유, 자유 ...**
- 현실에서 얻어지기 힘든 자유에 대한 추구는 결국 '이상'에 대한 강한 애착으로 전화
- 그런 이상을 19세기 초, 이른바 러시아의 일군의 귀족들은 '모든 형제가 평등한 사회'로 설정
- 삶과 예술의 관계에서, 낭만주의는 예술이 삶을 지배

